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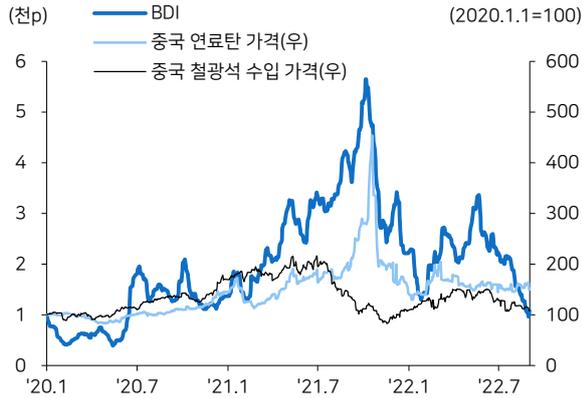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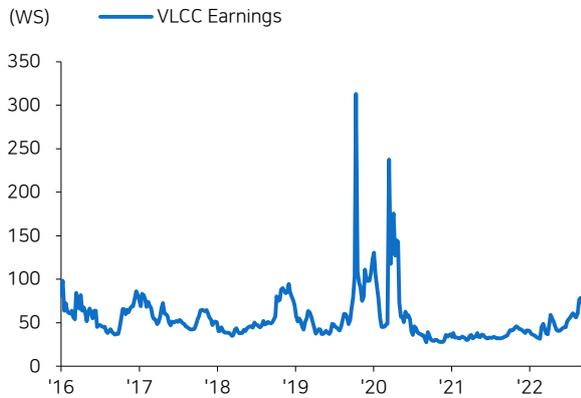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086.0p(+47.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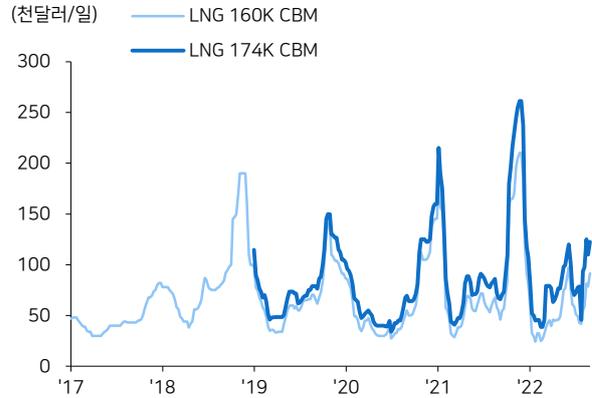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847.6p(-306.6p WoW)



VLCC Spot Rate 72.7p(-5.9p WoW)



LNG Spot 운임 91.5p(+13.0p WoW)
122.5p(+12.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2p(+0.0p WoW)
211.5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65.7p(-)
86.2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3,917억원 초대형 LPG 운반선 3척 수주

현대중공업이 총 3,917억원규모(척당 9,662만달러) 88,000CBM급 초대형 LPG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옵션 2척도 포함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됨. 88,000CBM급으로 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임. 최근 신 파나마 운하의 정체 및 요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을 선호하는 선주들이 늘고 있다고 알려짐. (연합인포맥스)

Russia switches off Europe's main gas pipeline until sanctions are lifted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잠갔는데, 서방 제재가 해제될때까지 완전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됨. 러시아 정부는 EU, 영국, 캐나다의 제재로 파이프라인 가스 수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함. (Financial Times)

경기 침체 우려에 OPEC+, 10월 하루 10만 배럴 감산 합의

OPEC+가 오는 10월 원유 생산을 9월대비 하루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됨. OPEC+는 2022년 하반기 원유 소비 위축으로 하루 90만 배럴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함. 한편, 11월 생산량을 결정하는 다음 회의는 10월 5일임. (매일경제)

US product export cuts could supercharge tanker rates, says Poten

Poten&Partners에 따르면,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하며 정유화학제품 수출 제한이 시작되면 현재 강세를 보이는 PC선 운임이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도됨. 최근 미국 에너지장관은 자국 에너지업계에 공급부족사태를 대비해 수출을 줄이고 재고를 쌓을 것을 권고함. 현재 미국 석유화학제품 재고량은 5년 평균을 크게 하회한다고 알려짐. 미국의 주 수출처는 남아메리카인데, 수출량을 줄이면 남아메리카는 중동·극동 지역에서 수입하게되어 톤마일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Adnoc awards \$548 million contract for expansion of giant Lower Zakum field

Adnoc이 5.48억달러규모 Lower Zakum 유전·가스전 확장 프로젝트 입찰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아부다비 국영 석유건설사(NPCC)가 신규 가스라인을 설치해 기존 생산량 4.3억에서 7억큐빅피트/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해당 유전의 원유 생산량도 2025년 450,000BPD까지 증가할 것으로 언급됨. (Upstream)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에...일본여행 예약 413.9% '경증'

COVID-19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일본여행이 다시 활기를 보인다고 보도됨. 8월 31일 COVID-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며 하나투어의 해외여행 예약은 8월 일평균 예약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짐. 특히 일본여행 회복세가 뚜렷함. 일본은 오는 9월 7일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이 시작되며 여행객들 사이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알려짐. (데일리안)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